

# 셋방살이 끝...집주인이 된 OTT

넷플릭스, '지옥' 등 올해만 13편 제작 애플TV+ '파친코' '미스터 로빈' 예고 티빙 '서복', 왓챠 '오리지널' 곧 공개 디즈니플러스도 NEW와 손잡고 준비



대표적 슈퍼 히어로물을 선보여온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가 전 세계 기대작 '블랙 위도우'의 개봉 연기 소식을 24일 알렸다.

당초 5월 극장 개봉을 예정했지만 7월로 미뤄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앞서 워너브러더스와 월트디즈니도 지난해 '월터우먼 1984'와 '물방' 등을 OTT인 HBO맥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각각 유통했다. 한국에서도 '사랑의 시간'을 비롯해 '콜' '승리호' '낙원의 밤' 등이 넷플릭스로 직행했다.

극장 등 기존 플랫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소비자와 이용자를 급격하게 잃어 버리고 인터넷망을 통한 일명 '집콕' 콘텐츠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굳어진 영상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방식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OTT는 이제 콘텐츠 제작의 강력한 주체로까지 나섰다.

## ●OTT가 몰려온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지난해 세계 OTT 시장규모가 전년의 930억 달러(105조원)보다 20%가 커진 1100억달러(124조원)로 추산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도에도 더욱 성장해 1410억달러(1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국내 OTT시장이 2014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8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봤다. 지난해 문화예술통계조사권 무역수지가 1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한국은행은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 등 전 세계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드라마가 힘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에도 "종전의 극장에서 OTT로, 유통 플랫폼의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만큼 현재 국내 OTT 시장은 치열한 경쟁구도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강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등 미국 플랫폼이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다. 월트디즈니의 루크 강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23일 "올해 안에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티빙, 왓챠, 웨이브 등 이미 자리를 잡은 '토종' 서비스와 함께 쿠팡플레이 등 신규 OTT도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각각 지상파



작년 넷플릭스로 전 세계 공개돼 호평을 얻은 드라마 '킹덤' 시즌2의 한 장면. 넷플릭스는 올해 시리즈의 외전인 '킹덤:아신전'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OTT	NETFLIX 넷플릭스	TVING 티빙	WATCHPLAY 왓챠	wavve 웨이브
이용자수 (자료:아이즈미트릭스·2020년 2월 기준)	1001만3283명	264만9509명	138만5303명	394만8950명
대표 콘텐츠	영화 '승리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킹덤' 시리즈	드라마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 '서복'(4월15일 공개)	영화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드라마 '체르노빌' 예술·고전영화	SF 시리즈 'SF8'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대표작	드라마 '킹덤' 시리즈	예능 '여고추리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	SF 시리즈 'SF8'
주요 콘텐츠 제휴	CJ ENM 등	CJ ENM	미국 HBO 드라마	KBS 등 지상파 방송사

※ 미국 OTT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 등 올해 한국 서비스 전망

방송사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주체들과 손잡고 영화와 드라마 등 자체 투자·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확대해가고 있다.

## ●왜 한국인가

넷플릭스는 공유·배우나 주연하고 정우성이 주연하는 드라마 '고요의 바다', 이정재·박해수의 '오징어 게임', 유아인·박정민이 출연하는 '지옥', 영화 '악녀' 정병길 감독의 '카터' 등 올해 13편을 제작한다. 이를 위해 5500억원을 투자한다.

티빙은 예능 콘텐츠 '여고추리반'과 드라마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를 선보이고 있다. 공유·박보검 주연 영화 '서복'도 4월15일 극장과 동시에 공개한다. 왓챠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다큐멘터리가 첫 작품이다.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를 주로 유통해온 웨이브는 SF시리즈 'SF8'을 제작하기도 했다.

모두 한류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넓

혀온 한국 콘텐츠의 힘에 기댄 흐름이다. 한국시장을 노리는 애플TV플러스가 윤여정·이민호 주연 드라마 '파친코'와 김지운 감독·이선균의 '미스터 로빈'을 제작 중인 사실도 이를 말해준다. 넷플릭스 김민영 한국·아태지역 총괄은 "한국 콘텐츠는 이제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장르가 됐다"면서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성장 중인(OTT)시장에선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하고, 성숙한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가 한국 콘텐츠를 강력한 무기 삼아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콘텐츠 종속 우려도

디즈니플러스도 국내 영화 투자배급 및 드라마 제작사 NEW와 손잡고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수업'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OTT는 국내 다양한 제작 주체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한 영화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영

**OTT(Over the Top·오버 더 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셋박스(셋)라는 기기가 필요한 케이블TV나 위성TV 등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TV와 PC·모바일 등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 등 미국 OTT와 티빙·웨이브·왓챠 등 '토종' OTT가 급성장한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화제작사가 넷플릭스를 비롯해 OTT 안에 줄을 서다시피 한 지 오래다"고 말했다. 그는 "극장 매출 창출은커녕 개봉조차 쉽지 않아 OTT가 마치 유일한 대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 글로벌 OTT와 국내 영화 투자배급사가 콘텐츠 유통 계약을 맺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그러나 "확정된 건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OTT의 힘이 커지면서 콘텐츠 제작 주체들은 제작 수수료 등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갖게 됐다. 문제는 그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영화 관계자는 "OTT에 콘텐츠가 몰리면서 제작 수수료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 일부 유력 투자배급사가 시장을 독점했던 상황처럼 OTT가 그 자리를 장악하면서 한국 콘텐츠가 그에 종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OTT 추천작 5

OTT의 핵심은 당연히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이다. 각 OTT가 자체 투자·제작하는 '오리지널'이거나 고성 콘텐츠를 리마스터링한 작품을 토대로 대표적인 다섯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 ●종이의 집(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시리즈.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교수'와 그가 이끄는 8명의 캐릭터가 스페인 조폐국을 터는 이야기로부터 시즌을 시작한다. 현재 시즌4까지 공개됐다. 우르술라 코

르베로, 알바로 모르테 등 스페인 연기자들의 탁월한 연기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한국 리메이크도 추진 중이다.

### ●퀵스 갬빗(넷플릭스)

체스를 소재로 한 소녀의 여정을 따라가는 7부작. 치열한 승부의 세계인 체스판 위에서 드러나는 욕망과 그 속에서 자라나는 한 인간의 성장기이다. 주연 안야 테일러조이에게 골든글로브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다. 골든글로브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수상작이다.

###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버전(왓챠)

2000년 왕자웨이 감독 작품. 1962년 홍콩의 상하이 이주민 아파트에서 만난 두 남녀가 서로에게 뜨겁게 다가서지 못하는 채, 애절한 감정을 이어간다. 량차오웨이와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차파올을 입은 장만영(장만숙)의 고혹적인 매력에 감성적인 음악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 ●킬링 이브(왓챠)

현장 경험 없는 평범한 영국 정보부 요원과 사이코패스 킬러인 두 여성의 추격전. 영국의 유력 언론 가디언이 '21세

기 100대 TV프로그램'으로 꼽았다. 시즌 4까지 공개됐다. 요원 이브 역의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와 사이코패스 킬러 역 조디 코머가 개성 뚜렷한 여성 캐릭터의 모범을 드러낸다.

### ●서복(티빙)

주연 공유·박보검의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인다. 4월15일 극장과 함께 동시 공개한다.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박보검)을 지키려는 전직 정보요원(공유)의 분투기이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연출해 인류의 미래를 둘러싼 새로운 시선과 두 남자의 진한 우정을 오가며 이야기를 펼친다.

## 연예뉴스 HOT 5

### 지누션 멤버 지누, 임사라 변호사와 결혼



그룹 지누션의 멤버 지누(김진우·50)가 오름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법률사 무소 팀의 임사라 변호사와 결혼한다. 지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4일 "두 사람이 결혼한다. 매우 축하할 일"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기다려온 인생의 반쪽을 찾아 가족을 이루게 됐다"면서 "결혼식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조촐히 식사는 자리로 대신할 예정"이라며 웨딩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며 임신 사실도 알렸다. 지누는 1997년 합합듀오 지누션으로 데뷔했고, 임 변호사는 배우 곽도원을 비롯해 김서형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다.

### 방역 위반 물의 유노윤호, 엠넷 '킹덤' 하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하차한다. 엠넷은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유노윤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녹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이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엠넷은 유노윤호 출연 분량은 진행자 역할에 초점을 맞춰 편집할 방침이다. 유노윤호는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 CGV, 오늘부터 '故 장국영 기획전'



멀티플렉스 CGV가 '별(★)을 추억하며'를 테마로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故 장국영 기획전'을 연다. 2003년 4월1일 세상을 떠난 장국영을 추모하는 무대로, 전국 34개 CGV 별★관에서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영웅본색' 1·2, '성월동화' 등 5편을 상영한다. 이 가운데 '아비정전' 속 고독한 아비의 모습이 실제 장국영과 많이 닮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별★관'은 CGV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재개봉 콘셉트의 특별관이다.

###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100 재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재진입해 34위를 기록했다. 24일 미국 빌보드의 최신 차트(27일자)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핫100'에서 지난주보다 9계단 올랐다. 또 미국을 제외한 세계 200개국의 음원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하는 '빌보드 글로벌'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6위다. 앨범도 힘을 발휘해 지난해 11월 선보인 'BE'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3계단 상승한 39위에 랭크됐다.

### 대중음악 공연계, 거리두기 체계 수정 요구

대중음악 공연계가 대중음악 콘서트를 '모임·행사'로 분류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중음악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모임, 행사 100인 집합 제한 규정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대중가수 콘서트는 '모임·행사'로 분류돼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반면 뮤지컬 등 다른 공연은 동반자와 좌석 간 띄어 앉기가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 소라 콘서트가 이 때문에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고 "바로 옆 공연장에서 뮤지컬 '위키드'가 공연했다"며 "공연 간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